

# 특집

## 사고력 계발로서의 글쓰기 교육

신상규\*

숙명여자대학교는 현재 ‘글쓰기와 읽기’, ‘발표와 토론’이라는 교양 필수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강좌의 운영을 위한 전담 기구로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가 설치되었고 13명의 전임 교원이 배속되었다. 교수들의 전공은 국문학과 철학을 중심으로 정치학·사회학·교육학 등 다양하다. 숙명여대는 국어·철학·역사 관련의 기존의 교양기초 과목을 모두 교양선택으로 전환시켰고, 이를 대체할 핵심교양 강좌로 위의 두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숙명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글쓰기 강좌를 중심으로 그것의 도입 배경과 현황,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하려 한다.

먼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가 만들어지고 ‘글쓰기와 읽기’와 같은 강좌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글쓰기가 중심이 되는 교양교육의 운영은 기존의 교양교육 체계와 내용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대안 모색의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실험적 시도이다. 글쓰기를 중심으로 교양과목을 개편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학과 분류에 따른 교양교육의 한계 또는 부분적인 실패를 인정한 데서 출발한다. 과거의 교양교육과 새로운 교양교육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교양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의 교양교육이 지식 교육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교양교육은 일종의 능력 교육을 지향한다.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교수.

그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과거의 교양교과목은 대체로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의 학문 분과를 망라한 개론류(입문·원론·총론)였다. 이 과목의 담당 교수는 각 분과 영역의 핵심 문제와 주요 이론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축적된 정보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도 나름의 성과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과목을 단순한 암기 과목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양교과목의 대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과목들의 내용을 좀더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대학 교양교과목의 내용을 스스로 고민해야 할 진지한 물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해왔는지도 모른다.

새로운 형태의 교양교육은 이러한 과거 교양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통절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교양교육은 무엇을 지향하고 그 것은 과거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앞서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양교육은 기존의 지식 교육에서 탈피한 능력 교육 중심의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능력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능력’은 일차적으로 분석력·비판력·종합력·창의력과 같은 사유 능력을 지칭한다. 능력 교육은 이러한 사유 능력의 계발과 신장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먼저 사유 능력은 언어 능력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개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 능력과 사유 능력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한다.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쓰기·읽기·말하기·듣기의 능력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하며, 우리의 사유는 이러한 능력과 별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생각은 머릿속에서 빙빙 돌지 만 말로 표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명료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는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써 정리하여 표현할 때에 그 생각이 한층 더 명료해지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불현듯 떠오르는 경험을 한다. 우리의 사유는 언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언어의 한계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라는 주장을 폐기도 하지 않았던가! 숙명여대의 글쓰기 프로그램은 우리의 사유 능력이 언어 능력과 별개의 것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사유 능력 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써의 언어 능력 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다양한 방식의 언어 능력 교육을 상상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제시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알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숙명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부과된 숙제일 것이다. 숙명여대에서는 우선 새로운 글쓰기 프로그램이 문제 중심의 학습(PBL)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러한 언어 능력 교육의 방법론으로 ‘논증적인 읽기와 쓰기’를 선택하였다. 이 결정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과 전통적인 방식의 언어 교육은 뚜렷한 거리를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 교육이라고 하면, 어학이나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글쓰기 교육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맞춤법이나 띠어쓰기, 또는 수려한 문장의 글을 쓰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논증적인 쓰기와 읽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무시되지 않는지만, 이 부분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글쓰기와 글짓기의 개념을 편의상 구분해보자. 글짓기의 능력은 일종의 창작에 해당한다. 하지만 글쓰기는 아름다운 글을 창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글이라는 매체를 빌려서 명료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다양한 갈래의 글 중에서 특히 논증적인 형식의 글을 쓰게 하는 것이다.

논증적인 읽기와 쓰기는 논증적 사유와 분리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

논증적 사유란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에 대하여 그 근거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합리적 이유를 통하여 정당화하려는 정신 활동이다. 이러한 논증의 방식을 글쓰기와 읽기에 적용할 경우,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읽으면서 먼저 그 결론이나 주장을 먼저 찾아보고 그러한 주장이나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나 근거를 찾아서 평가하라고 요구한다. 논증적 글쓰기는 단순한 인상이나 감상을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근거와 이유에 입각한 글을 쓸 것을 요구한다. 논증은 각각의 대안적 견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탐구 수단인 동시에, 자신 또는 타인의 주장이나 입장을 응호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을 습득케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많은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교과서나 교사가 전달하는 일방적인 정보나 주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 익숙하다. 논증적 쓰기와 읽기를 통하여, 학생들은 지금까지 의심치 않았던 다양한 견해와 판단들에 의문을 품어보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당화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생활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자신의 견해를 책임감 있게 응호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논증적인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글쓰기 과목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난관은 교과서 문제이다. 숙명여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교재는 여성·철학·과학·역사·사회·문학·문화의 일곱 개의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선택된 고전들에서 발췌한 내용과 간단한 소개 글을 싣고 있다. 교재를 만들면서 우리들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이 텍스트 자료를 기반으로 논증적인 쓰기와 읽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장의 말미에 적절한 학습 활동을 첨부하는 작업이었다. 능력의 관점에서 분석력→비판력→종합력→창의력의 순서로 각각의 능력 개발에 적합한 문제의 형태를 고민하였고, 이것이 앞서 언급한 주제별 영역의 순서와 무리 없이 맞물리게끔 노력하였다.

전례가 없는 시도였던 만큼 그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도 발견되었다. 기본적으로 고전이라는 자료가 논증적인 읽기와 쓰기를 연습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대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접해왔던 글들에 비해 고전은 그 논의의 수준이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다. 또한 논증 연습에 적합한 자료 글을 고전에서 찾아 빌췌하는 일과 그것을 자료로 삼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논증적 훈련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고안하는 일도 커다란 도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고전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장점도 있다. 먼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학 신입생들은 제목만 들어왔던 고전의 실체를 접하면서 지적 자극을 받는다. 또한 고전이 담고 있는 생각이나 질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주제들인 만큼, 고전을 통해 세계와 자신을 더욱 깊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접할 수 있다.

능력 교육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더욱 적합하도록 현재의 글쓰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다양한 방식의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존 교재와 서술 방식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나 부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에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철저한 워크북 방식의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교재는 각각의 능력 계발에 적합한 읽기 자료를 선별하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연습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련 능력을 계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지식 중심이나 교사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을 염두에 둔 철저한 능력 중심의 교재이어야 한다. 우리가 계발하려는 능력이 무엇이며, 어떤 자료와 어떤 질문들을 활용해야만 그런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계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안은 각 영역에서 계발된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고급 과목에 대한 모색이다. 단지 한 학기 동안 ‘글쓰기와 읽기’라는 과목을 수강하였다고 해서 앞서 언급한 다양한 능력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교양필수 과목으로서 ‘글쓰기

특집 사고력 계발로서의 글쓰기 교육

와 읽기' 강좌의 동기 및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급 과목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5